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고찰*

- 『說文解字』「疒」부를 중심으로

서재선**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2) 외상 |
| 1) 연구범위와 방법 | 3) 약물 오용 |
| 2) 선행연구 | 4) 역병 |
| 2.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 5) 과로 |
| 1) 氣의 과다 | 6) 선천적인 장애 |
| | 3. 나오며 |

【초록】

『說文解字』卷七下「疒」부에 나타난 질병과 관련 있는 글자는 모두 103개 글자로 다수가 질병과 관련한 글자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근본 원인과 질병관, 질병의 종류와 증상, 질병의 쾌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說文解字』「疒」부에서 22개의 글자를 통해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첫째, 氣의 과다로 인한 질병. 둘째, 외상으로 인한 질병. 셋째, 약물 오용으로 인한 질병. 넷째, 역병으로 인한 질병. 다섯째, 과로로 인한 질병. 여섯째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질병으로 『說文解字』의 「疒」부의 글자들을 통해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외 『說文解字』에서 기술된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출토문자들과 대조해 보고, 방증으로 중국 고대 자서와 의학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탐구하며 전개하였다.

【키워드】 『說文解字』, 「疒」부, 고대 중국인의 질병, 문자 속에 나타난 고대문화, 어원학

* 이 연구는 2022~2023년 강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서재선, 강서대학교 G2빅데이터경영학과 중국어트랙 교수 (jsseoh@naver.com)

1. 들어가며

1) 연구 범위와 방법

『說文解字』는 동한시대 및 그 이전의 글자들을 집대성한 자전으로 수집된 글자의 범위가 광범하다. 高明의 「對說文解字之新評價」에서 『說文解字』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14가지로 평가를 했다. 그중 10번째의 가치에서 “說文藏先民之史”라는 말과 12번째 가치에서 “說文供博物之資”라는 말이 있다.¹⁾ 즉 『說文解字』는 글자의 자구 해석 뿐만 아니라 글자 속에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문화가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한 허신이 집필한 『說文解字』에는 질병을 인식하고 있는 글자들이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데 중의학과 관련 있는 글자들은 許敬生의 통계²⁾에 따르면 “1300개의 글자가 있고 그 중 병리학 방면의 글자들은 427개 글자가 있고, 이 중 400개의 한자가 대부분 병명을 나타내고 이 병명을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및 유행성 전염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한다. 『說文解字』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卷七下「疒」부에 해당하는 文字群이다.

「疒」부에 나타난 질병과 관련 있는 글자는 모두 103개 글자로 ‘고대 중국인의 질병의 종류와 증상, 질병 발생의 근본 원인과 질병관, 병의 쾌유’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03개 글자 중 ‘질병 발생의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분류해 보니 22개의 글자로 추려지게 되었다.

이 글자들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說文解字』가 출간되기 전의 출토문자들과 대조해 보고, 방증으로 중국 고대 자서와 의학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① 「문자로 본 중국인의 질병관 - 『說文解字』 「疒」부 분석을 중심으로」³⁾

- 1) ‘說文藏先民之史(설문해자는 선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說文供博物之資(설문해자는 온갖 사물의 자료를 제공한다)’. 高明, 「對說文解字之新評價」, 『高明小學論叢』,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88.10, pp.12-16.
- 2) 許敬生, 「簡論『說文解字』在中醫研究的價值」, 『許慎文化網』, 2006.08.30.
- 3) 洪연옥, 「문자로 본 중국인의 질병관 - 『說文解字』 「疒」부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雜誌』, 第58輯, 2017. pp.146-148.

3장에 “중국 고대인이 바라본 병의 원인” 그 내용에는 병의 원인을 ‘氣’와 ‘風’으로 기술하였다.

② 『中國古代疾病관련 甲骨卜辭研究』⁴⁾

제4장 “질병 원인에 관한 卜辭 檢討”에서 원인을 ‘신의 災殃’, ‘氣候의 영향’, ‘蟲의 영향’, ‘夢의 영향’, ‘傷害의 영향’이라고 기술하였다.

③ 『說文解字“疒”部研究』⁵⁾

이 논문에서 『說文解字』‘疒’부를 ‘병의 증상’, ‘병의 호전’, ‘악화’, ‘병세의 가중’, ‘질병의 통칭’으로 분석하였다.

④ 『『說文解字』疒部字研究』⁶⁾

이 논문의 2장 3절 “具體成因導致的疾病”에서 10개의 글자를 풀이하여 ‘풍병(風病)’, ‘적혈(積血)’, ‘氣의 불안정’,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 ‘寒氣로 인한 병’ 등으로 발병 원인을 기술하였다.

⑤ 『從『說文解字』探索中國古代人體及疾病的認知說文解字』⁷⁾

이 논문의 제3장 “中國古代對身體的觀察與認識”에서 ‘머리를 표시하는 글자’, ‘목을 표시하는 글자’, ‘몸통을 나타내는 글자’, ‘흉부를 나타내는 글자’, ‘외과에 속한 글자’, ‘구강을 나타내는 글자’, ‘소아과를 나타내는 글자’, ‘실어증을 나타내는 글자’ 등으로 기술하였다.

⑥ 『從疒部內容看古代醫療文化——以『說文解字』、『玉篇』、『正字通』、『康熙字典』』⁸⁾

『說文解字』, 『玉篇』, 『正字通』, 『康熙字典』에 수록된 ‘疒’부 글자의 ‘자수의 차이’, ‘결손글자’, ‘첨가된 글자’들을 비교분석, ‘『說文解字』, 『玉篇』의 훈석(訓釋)의 차이점’, ‘『玉篇』과 『正字通』의 훈석(訓釋)의 차이점’, ‘『正字通』, 『康熙字典』훈석(訓釋)의 차이점’, ‘의료기록, 고대 의료문화 중 ‘병명’, ‘증상’, ‘의료한 내용’ 등을 기술하였다.

필자는 위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說文解字』‘疒’부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해 언급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질병 발생원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說文解字』‘疒’부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4) 김영현, 『中國古代疾病관련 甲骨卜辭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pp.76-89.

5) 唐飛, 『說文解字“疒”部研究』, 『青年與社會』, 2013.06, p.295.

6) 孫時懿, 『『說文解字』疒部字研究』,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13.05, pp.11-12.

7) 黃正純, 『從『說文解字』探索中國古代人體及疾病的認知』, 國立中央大學 碩士論文, 2018.06, pp.44-189.

8) 曾思珊, 『從疒部內容看古代醫療文化——以『說文解字』、『玉篇』、『正字通』、『康熙字典』』, 臺北市立大學 碩士論文, 2019.06, pp.47-188.

2.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

1) 氣의 과다

『左傳·昭公元年』: “하늘에는 여섯 가지 기운이 있는데 (땅으로) 내려오면 오미(五味)가 생겨나고 오색(五色)이 되어 발현되며 오성(五聲)이 징험되는데, 지나치면 여섯 가지 병이 생긴다. 여섯 가지 기운은 음(陰), 양(陽), 풍(風), 우(雨), 회(晦), 명(明)을 말하는데, 네 가지 시간으로 나누어지고, 다섯 마디 차례가 되는데,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음(陰)이 지나치면 찬 병이 생기고, 양(陽)이 지나치면 열병이 생기고, 풍(風)이 지나치면 수족에 질병이 되고, 우(雨)가 지나치면 뱃병이 생기고, 회(晦)가 지나치면 의심하는 병이 생기고, 명(明)이 지나치면 마음이 병이 생긴다.”⁹⁾

이 내용은晉侯가 병환이 생겨 秦나라에 도움을 청할 때, 秦伯이 秦나라 명의 醫和한테 晉侯를 치료하게 한 후 醫和가 “六氣病源(여섯 가지 병의 근원)”이라는 학설을 내놓았다. 즉 六氣는 陰, 陽, 風, 雨, 晦, 明으로 등 천지 사이의 여섯 가지 기운이다. 다시 풀이하면 風, 寒, 暑, 濕, 燥, 火 여섯 가지 기운으로, 六氣가 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이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를 “六淫¹⁰⁾”이라 하여 신체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후세 ‘질병 발생원인 학설’의 시조가 되었다.

① 痺

痺, 『說文解字·疒部』: “痺, 風病也. 从疒非聲.”¹¹⁾

『說文解字約注』: “乃中風之後, 手足癱瘓, 不能屈伸者, 醫經謂之風痺, 是也.”¹²⁾

9) 『左傳·昭公元年』: “天有六氣, 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 淫生六疾. 六氣曰陰, 陽, 風, 雨, 晦, 明也. 分爲四時, 爲五節, 過則爲災: 陰淫寒疾, 陽淫熱疾, 風淫末疾, 雨淫腹疾, 晦淫惑疾, 明淫心疾.” 左丘明, 『左傳』, 『十三經注疏』6,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p.708-709.

10) 六淫: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6가지의 병사(病邪)를 종합하여 이르는 말. 육기(六氣)가 너무 과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불응할 때 인체의 조절 적응 기능 및 병원체의 자생과 전파에 영향을 주어 질병의 사기(邪氣)를 형성하니, 병의 원인이 된다.

11) 『說文解字·疒部』: “중풍을 말한다. 疒가 의미부이고 非가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篇下, 臺北:書銘出版社, 1994.10, p.353.

12) 『說文解字約注』: “중풍이 들어 손발에 마비가 와서 팔다리를 굽혔다 펼 수 없는 것으로, 醫經에서는 ‘몸의 반쪽을 잘 쓰지 못하는 병’라고 했다.” 張舜徽, 『說文解字約注』卷十四2冊,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9.12, p.1829.

『說文解字』에서는 비(痺)자는 ‘풍병’이라고 했고, 『說文解字約注』에서는 ‘중풍이 들어 손발에 마비가 와 팔다리를 굽혔다 펼 수 없는 것’으로 풀이했다. 『說文解字約注』에서 인용한 『醫經』에서는 ‘몸의 반쪽을 잘 쓰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다. 이것은 六氣 중 ‘風’으로 인한 질병이다.

② 痺

痺, 『說文解字·疒部』: “痺, 溼病也. 从疒界聲. 必至切.” 段注 “素問痺論, 痿論各爲篇. 岐伯曰, 風寒溼三氣雜至. 合而爲痺也. 从疒界聲.”¹³⁾

『漢書·藝文志』: “五臟六腑痺十二病方三十卷” 顏師古注曰 “痺, 風濕之病, 音必二反.”¹⁴⁾

『黃帝內經·素問·痺論』 “風寒溼三氣雜至, 合而爲痺也 其風氣勝者爲行痺, 寒氣勝者爲痛痺, 濕氣勝者爲著痺也.”¹⁵⁾

비(痺)자는 『說文解字』에서 ‘습기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허신은 비(痺)병의 발병 원인이 ‘습기’에만 국한되어 풀이하였다. 하지만 단옥재는 『黃帝內經·素問』을 인용하여 ‘風, 寒, 濕 삼기가 서로 섞여 체내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칠 때 발병하는 마비 증상’을 비(痺)로 해석하여 허신의 해석을 보충하였다. 『漢書·藝文志』顏師古주석에는 ‘바람과 습기’로 인한 병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허신은 비(痺)자를 단지 ‘습기’로 인해 발병된 병으로 보고 있으나, 『黃帝內經·素問』에는 六氣중 ‘風, 寒, 濕 三氣의 과다로 인해 발병된 병으로 기술하고 있다.

③ 痲

痲, 『說文解字·疒部』: “痲, 中寒腫覈. 从疒豕聲. 陟玉切.” 段注 “趙充國傳, 手足皸痲. 文穎曰, 痲, 寒創也. 按腫覈者, 腫而肉中覈, 如果中有覈也. 覈, 核古今字, 从疒豕聲.”¹⁶⁾

13) 『說文解字·疒部』: “습병(濕病)’을 말한다. 疒이 의미이고, 界가 소리부이다.” 段注: “『素問·痺』, 『素問·痿論』각편에, 岐伯왈, 풍(風), 한(寒), 습(濕)三氣가 섞이고 합해져 마비가 생긴다. 疒가 의미부이고 界가 소리부이다.” 許愼, 『說文解字』卷七下, p.354.

14) 『漢書·藝文志』: “五臟六腑痺十二病方三十卷” 顏師古 주왈: “痺는 風과 濕으로 인한 병이다.” 楊家駱, 『漢書·藝文志』, 『新校本漢書并附編二種』二, 臺北: 鼎文圖書局印行, 1995.01, p.1777.

15) 『黃帝內經·素問·痺論』: “풍·한·습(風·寒·濕)의 세 가지 사기가 섞여 들어오면 합하여 비병(痺病)이 된다. 그중에서 풍기가 성한 것은 행비(行痺)가 되고, 한기(寒氣)가 성한 것은 통비(痛痺)가 되고, 습기(濕氣)가 성한 것은 저비(著痺)가 된다.” 『黃帝內經』卷六『素問·痺論』四十三,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14.

「漢書·趙充國辛慶忌傳」第三十九 “將軍士寒，手足皸。”文穎曰 “皸，坼裂也。瘡，寒創也。”¹⁷⁾

「黃帝內經·靈樞經·陰陽二十五人」：“足陽明之下血氣盛則下毛美長至胸，血多氣少則下毛美短至臍，行則善高舉足，足趾少肉足善寒，血少氣多則肉而善瘡，血氣皆少則無毛有則稀，枯悴，善痿厥，足痺。”¹⁸⁾

축(瘡)자는 『說文解字』에서 ‘한기(寒氣)에 걸려 살에 종기가 생겨 과일 속의 씨처럼 부풀어 올랐다’라고 했다. 「漢書·趙充國辛慶忌傳」文穎주에서 ‘동상’이라고 해석하였고, 「黃帝內經·靈樞經·陰陽二十五人」에서도 ‘살에 동상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축(瘡)자는 六氣중 ‘한기(寒氣)’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다.

2) 외상

① 疔/瘡/癰/瘻

疔, 「說文解字·疒部」: “疔, 瘡瘡, 毆傷也. 从疒只聲, 諸氏切.” 段注 “應劭曰, 以杖手毆擊人, 剝其皮膚, 起青黑而無創癰者. 律謂瘡瘡. 按此, 應注譌脫. 急就篇顏注云, 毆人皮膚腫起曰瘡, 毆傷曰瘡. 蓋應注律謂瘡下奪去六字. 當作其有創癰者謂瘡. 文選嵇康詩, 怛若創瘡. 李善引說文, 瘡, 癰也, 正與應語合, 皆本漢律也. 瘡輕瘡重, 遇人不以義而見瘡. 罪與瘡人等. 是瘡人者輕論, 見瘡者重論...創癰謂皮破血流.”¹⁹⁾

16) 「說文解字·疒部」: “추위에 노출이 되어 과일의 씨처럼 부어오르는 병, 즉 동상을 말한다.” 段注: “趙充國傳에, ‘손과 발이 얼어 터진 것’을 말한다. 文穎알, 瘡자는 ‘동상’이다. 단옥재 안, 종핵(腫覈)이란, ‘부어서 살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한다. 마치 과일의 씨처럼 부어오르는 병’이다. ‘覈’자와 ‘核’자는 고금자(古今字)이다. 疒의미부와 豕소리부를 따른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4.

17) 『漢書·趙充國辛慶忌傳』: “장군과 병사들이 손과 발이 얼어 터졌다.” 文穎알: “군(皸)자는 (손발이)얼어터지는 것을 말한다. 축(瘡)자는 동상을 말한다.” 楊家駱, 「漢書·趙充國辛慶忌傳」第三十九, 『新校本漢書并附編二種』四, 臺北: 鼎文文書局印行, 1995.01, p.2980.

18) 「黃帝內經·靈樞經·陰陽二十五人」: “족양명의 아래에 혈기가 왕성하면 음모가 아름다우며 길어 가슴까지 이어지고, 혈이 많고 기가 적으면 음모가 아름다우나 짧아 배꼽까지 이어져 걸어 다닐 때 발을 높이 들고 발가락 살이 적어 발이 쉽게 차게 되고, 혈이 적고 기가 많으면 살에 동상이 잘 걸리며, 혈기가 모두 적으면 털이 없고 혹 있더라도 드물며 말라 초췌하며 위궤증과 족비증이 잘 생기게 된다.”

19) 「說文解字·疒部」: “瘡, 구타로 생긴 병을 말한다. 疒이 의미부이고, 只가 소리부이다.” 段注: “지팡이와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그 피부를 벗기고, 검푸른 멍이 들고, 흉터가 없는 것을 모두 ‘지유(瘡瘡)’이라고 한다. 단옥재 안, 應劭주는 오류가 있다. 『急就篇』顏注 ‘사람을 때리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것을 지(瘡)’라고 하고, 타박상을 유(瘡)’라고 한다. 應劭주는 일괄 ‘지(瘡)’라고 하고, 아래 6자를 없애 버렸다. 마땅히 상처의 자국이 있는 것을 ‘유(瘡)’라고 해야 한다. 『文選』嵇康의 시에서 ‘슬픔이 마치 타박상과 같다’에서 李善이 『說文』을 인용하여 ‘유(瘡)자는 타박상’이라고 했다. 이것은 應劭의 주와 말이 같다. 모두 漢律을 따랐다. 지(瘡)자는 그 상처가 가볍고,

疒, 『說文解字·疒部』: “疒, 瘡也. 从疒有聲. 一曰疒. 癰也.”²⁰⁾

癰, 『說文解字·疒部』: “癰也. 从疒般聲. 薄官切.” 段注 “按古義傷處曰癰.”²¹⁾

瘡, 『說文解字·疒部』: “傷也. 从疒夷聲. 以脂切.”²²⁾

『說文通訓定聲』 “凡毆傷皮膚起青黑而無創癰者爲瘡, 有創癰者曰瘡.”²³⁾

지(瘡), 유(瘡)자는 ‘구타로 인한 상처’이다. 그러나 이 두 글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단옥재 주와 『說文通訓定聲』에 의하면, ‘구타를 당했는데, 피부가 붓고 멍들은 경우는 지(瘡)이고, 피부가 붓고 멍들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러 흉터가 생겨 상처가 난 것은 유(瘡)’라고 했다. 둘 다 몽둥이나 손으로 맞아서 멍들은 상처이나, 지(瘡)자는 그 상처가 가볍고, 유(瘡)자는 상처가 중한 경우이다. 유(瘡), 반(癰), 이(瘻) 세 글자 들은 서로 의미를 互用하여 ‘외상으로 인해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3) 약물 오용

① 癰

癰, 『說文解字·疒部』: “癰, 楚人謂藥毒曰痛癰. 从疒刺聲, 盧達切.”²⁴⁾

『方言』 “凡飲藥傳藥而毒, 南楚之外謂之癰. 自關而西謂之毒癰, 痛也.”²⁵⁾

랄(癰)자는 『說文解字』에서 ‘약의 독성을 통랄(痛癰)’이라고 했다. 『方言』에서도 ‘약

유(瘡)자는 그 상처가 중한 경우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흉터가 심한 것을 보면 의롭지 않게 여겼다. 죄가 있어 흉터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멍이 든 사람은 가벼운 상처이고, 흉터 자국이 있는 것은 보면 심한 상처라고 여겼다. … 창반(創癰)은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4.

20) 『說文解字·疒部』: “지유(瘡瘡)는 멍을 말한다. 疒는 의미부이고, 有성을 따른다. 한편으로는 유(瘡)를 ‘흉터’라고도 한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4.

21) 『說文解字·疒部』: “반(癰)자는 상처로 생긴 흉터를 말한다. 疒는 의미부이고 般은 소리부이다.” 段注 “단옥재 안, 옛 뜻은 ‘상처’를 ‘반(癰)’이라고 한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5.

22) 『說文解字·疒部』: “이(瘻)자는 상처를 말한다. 疒는 의미부이고, 夷는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5.

23) 『說文通訓定聲』: “무릇 두들겨 맞아 피부에 검푸른 멍이 들었으나 상처가 없는 것을 ‘지(瘡)’라고 하고, 상처에 흉터가 난 것을 ‘유(瘡)’라고 한다.”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75.08, p.543.

24) 『說文解字·疒部』: “癰은 ‘초지역 사람들은 약의 독성을 통랄(痛癰)’이라고 한다. 疒이 의미부이고, 刺이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6.

25) 『方言』: “약을 마시거나 약을 몸에 발라 몸에 독이 퍼진 것을 남초지역 밖에서는 ‘랄(癰)’이라고 하고, 관서지역에서는 ‘독랄(毒癰)’이라고 하여, 매우 아픈 것을 말한다.” 戴震, 『方言疏證』卷三,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4.

을 마시거나 약을 몸에 바른 후 독이 퍼진 것을 남초지역 밖에서는 ‘랄(癰)’이라고 하고, 관서지역에서는 ‘독랄(毒癰)’이라고 하여, 매우 아픈 것을 말한다.’ 즉 ‘랄(癰)’자는 ‘약물을 오용하여 생긴 독으로 인해 매우 아픈 상황’을 말한다.

② 癰

癰, 『說文解字·疒部』: “癰, 朝鮮謂藥毒曰癰. 从疒勞聲, 郎到切.”²⁶⁾

『方言』“凡飲藥傳藥而毒, ……北燕朝鮮之間謂之癰.” 戴震疏引『廣雅』“癰毒, 癰痛也.”²⁷⁾

‘노(癰)’자 역시 ‘랄(癰)’자와 동일한 의미로 ‘약물 오용으로 인한 독으로 심하게 앓는 질병’을 말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方言』에 의하면 북연(北燕)과 조선(朝鮮)지역에서는 ‘노(癰)’라는 글자로 사용하였다.

4) 역병으로 인한 질병

역병(疫病)은 이후 ‘온역(瘟疫)’이라고도 부르며, 강렬한 전염성이 있는 외래적인 요소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다.

『周禮·夏官·司燿』: “司燿掌行火之政令, 四時變國火, 以救時疾.” 賈公彥疏「司燿, ……所以禳去時氣之疾也.”²⁸⁾

『周禮』에는 ‘時疾’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전염병을 일컫는 말이다.

① 疫, 癘

疫, 『說文解字·疒部』: “疫, 民皆疾也. 从疒, 役省聲, 營隻切.”²⁹⁾

26) 『說文解字·疒部』: “癰는 조선지역에서는 약이 독한 것을 ‘로(癰)’라고 했다. 疒는 의미부이고, 勞는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十三編上, p.678.

27) 『方言』: “무릇 약을 마시거나 약을 발라 독이 퍼진 것을 것을 말한다. …… 북연(北燕)과 조선(朝鮮)지역에는 노(癰)라고 한다.” 戴震疏引『廣雅』: “노독(癰毒)은 심하게 아픈 것을 말한다.” 戴震, 『方言疏證』卷三,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4.

28) 『周禮·夏官·司燿』: “사관(司燿)은, 불에 관한 정령(政令)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사계절마다 나라의 불을 바꾸어 때의 질병을 구한다.” 賈公彥疏: “司燿은……계절마다 유행하는 질병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周禮·夏官·司燿』, 『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458.

29) 『說文解字·疒部』: “역(疫)자는 백성이 모두 함께 앓는 질병을 말한다. 疒이 의미부이고, 役의 생략된 부분이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5.

癘, 『說文解字·疒部』: “癘, 惡疾也. 从疒, 蠱省聲, 洛帶切.”³⁰⁾

『漢書·刑法志』: “鬻棺者欲歲之疫” 顏師古注 “鬻, 賣也, 疫, 癘病也.”³¹⁾

『周禮·天官·疾醫』: “四時皆有癘疫.” 鄭玄注 “癘疫, 氣不和之疾.” 賈公彥疏 “癘謂癘疫……癘氣與人爲疫.”³²⁾

『後漢書·鐘離意傳』: “會稽大疫, 死者萬數.” 李賢注 “疫, 癘氣也.”³³⁾

『左傳·哀公元年』: “在國天有災癘.” 杜預注 “癘, 疾疫也.”³⁴⁾

『山海經·西山經』: “食之已癘.” 郭璞注 “癘, 疾疫也, 或曰惡創.”³⁵⁾

『說文解字』에서 역(疫)은 ‘백성들 모두가 병에 걸렸다’는 의미로 ‘당시 전국적인 유행성 전염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癘)는 ‘악한 질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書·刑法志』, 『後漢書·鐘離意傳』, 『左傳·哀公元年』, 『山海經·西山經』에서 역(疫)과 여(癘) 두 글자가 ‘온역(瘟疫)’이라는 뜻으로 호훈(互訓)되고 있다. 『周禮·天官·疾醫』鄭玄注, 賈公彥疏에서 이 두 글자가 합하여 구체적으로 ‘기가 조화롭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전염병의 여기(癘氣)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발병하는 역병이다.’라고 했다. 『後漢書·鐘離意傳』에서도 ‘회계(會稽)에서 큰 온역에 걸려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면 역(疫)과 여(癘)자는 ‘전염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그리고 『說文解字』 이전의 문헌을 보면, 여(癘)자의 함의가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여(癘)자는 역(疫)자와 같이 ‘전염병’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또 ‘악질’ 즉 ‘문둥병’이라는 의미에도 사용되었다. 그 예로, 『黃帝內經·素問·風論』: “문둥병은 영기(榮氣)가 뜨거워져 썩어서 그 기운이 맑지 않으니 그러므로 그 비주(鼻柱)로 하여금 무너져서 살이 썩게 하며 피부가 양궤(瘍潰)하게 한다. 풍한의 사기가 맥에 머물러서 물러가지 않으니, 이 름하여 ‘여풍(癘風)’이라 하고 혹 이름하여 ‘한열(寒熱)’이라 한다.”³⁶⁾ 그래서 『說文解

30) 『說文解字·疒部』: “여(癘)자는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난 것을 말한다. 疒이 의미부이고, 채(蠱)자의 생략된 부분이 소리부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4.

31) 『漢書·刑法志』: “관을 파는 자는 일년내내 역병이 발생하기를 바란다.” 顏師古注: “육(鬻)은 ‘팔다’의 뜻이고, 여(癘)는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난 병’을 뜻한다.” 楊家駱, 『漢書·刑法志』第三, 『新校本漢書并附編二種』二, 臺北:鼎文文書局印行, 1995.01. p.1110.

32) 『周禮·天官·疾醫』: “사계절 모두 역병이 돌았다.” 鄭玄注: “여역(癘疫)은, 氣가 조화롭지 못해 나타나는 질병이다.” 賈公彥疏: “여(癘)자는 돌림으로 인해 앓는 열병이다.……돌림병이 사람들에게 옮겨서 생기는 병이다.” 『周禮·天官·疾醫』, 『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73.

33) 『後漢書·鐘離意傳』: “회계(會稽)에서 대역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 李賢注: “역(疫)자는 돌림병이 생기게 하는 기운.” 『後漢書·鐘離意傳』, 『後漢書』2, 臺北:洪氏出版社印行, 1978.10, p.1406.

34) 『左傳·哀公元年』: “나라 온천지에 역병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杜預 注: “여(癘)자는 역병이다.” 『左傳·哀公元年』, 『十三經注疏』6,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992.

35) 『山海經·西山經』: “이것을 먹으면 역병이 낫는다.” 郭璞注 “여(癘)자는 역병, 혹은 악창이다.” 『山海經·西山經』, 『山海經校注』, 臺北:洪氏出版社印行, 1981.11, p.25.

字』에서 여(癘)자의 의미를 ‘악질’이라고 풀이하였다.

역려(疫癘)로 인한 병의 심각성은 『諸病源候論』卷十 “人感乘戾之氣而生病, 則病氣轉相染易, 乃至滅門, 延及外人.”³⁷⁾에서 ‘여지기(戾之氣)’가 바로 ‘온역(疫癘)’이고, 이 사악한 병균의 기운으로 인해 감염되어 발병된다. 그 병균은 쉽게 전염이 되어 결국에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역려(疫癘)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역려(疫癘)’의 기운이 폭발하면 그 결과가 심각하여 신령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그 기록이 『說文解字』에도 있다.

禳「說文解字·示部」: “𩇛, 設綿蕪為𩇛, 以禳風雨, 雪霜, 水旱, 厲疫于日月星辰, 山川也.”³⁸⁾

禳「說文解字·示部」: “𩇛, 礫禳祀, 除癘殃也. 古者燧人禳子所造, 从示襄聲.”³⁹⁾

영(禳), 양(禳)자에서 ‘역려(疫癘)’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일원성신과 산천에게 제사를 지내고 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고대 중국인이 ‘역려(疫癘)’에 대한 공포가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瘡

학(瘡)자는 갑골문에도 등장한다. 徐中舒는 『甲骨文字典』에서 𩇛(一期 存1.1274), 𩇛(一期 前5.31.1)의 글자를 ‘질병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닐까’ 하고 의문으로 남겼다.⁴⁰⁾ 그러나 『甲骨文字典』에는 𩇛(合集17452)로 ‘夢’으로 해석하였다.⁴¹⁾ 그래서 소수

36) 『黃帝內經素問·風論』: “癘者, 有榮氣熱肘, 其氣不清, 故使其鼻柱壞色敗, 皮膚瘍潰, 風寒客於脈而不去名曰癘風. 或名曰寒熱.” 『黃帝內經』第十二卷「素問·風論」四十二,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12.

37) 隋代 巢元方等, 『諸病源候論』: “사람이 악한 기운을 타고 병이 나면, 즉, 병의 기운이 서로에게 전염되기 쉽고, 더 나아가 한 집안이 다 죽게 되어,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諸病源候論』은 중국 최초 각종 질병 원인, 병리 변화, 증상들을 기술한 전문 서적이다. https://www.zysj.com.cn/lilunshuji/zhubingyuanhouhun/623-14-1_group.html [2023.10.26.]

38) 『說文解字·示部』: “禳은 비단실로 띠를 감고 묶어 세워 영역으로 삼고, 거기서 비나 바람, 눈이나 이슬, 홍수나 가뭄, 역병 등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일원성신과 산천에게 비는 제사를 말한다.” 許慎, 『說文解字』卷一上, p.6.

39) 『說文解字·示部』: “禳은 희생을 갈기갈기 찢어 제수로 올려 역병의 재앙이 없어지기를 비는 제사이다. 먼 옛날 수인씨(燧人氏)가 그의 자손들을 위해 만들었던 제사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一上, p.7.

40) 徐中舒는 『甲骨文字典』“己亥卜貞卓有𩇛勿希有句亡句十月.”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3.09, p.842-843.

41) 姚孝遂, 『甲骨刻辭類纂』下冊, “己亥卜貞𩇛有夢勿崇有句無句十月.” 1989.01, 中華書局 p.1187/

의 학자들은 徐中舒의 학설을 인용해 상나라 시대의 온역이 있었음의 증거 문자로 삼으려 하나 아직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 글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출토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병명 ‘학질’이 속한 ‘오학(五瘡)’은『黃帝內經·素問』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黃帝內經·素問·刺瘡論」: “폐학(肺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여 오한이 심하다가 발열이 나게 하고, 열이 나는 사이에 자주 놀라며 마치 헛것이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수태음경(手太陰經)과 수양명경(手陽明經)에 침을 놓습니다. 심학(心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번거로운 게 심하여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오한은 많고 발열은 심하지 않으니, 수소음경(手少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간학(肝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에 푸른색이 나타나며 크게 숨을 몰아쉬고 그 모습이 마치 기절한 듯하게 하니, 족厥陰경(足厥陰經)에 침을 놓아 피를 뱉습니다. 비학(脾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한이 날 때는 뱃속이 아프게 하다가 발열이 날 때는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며,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그치고서 땀이 나니, 족태음경(足太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신학(腎瘡)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싹오싹하게 하며 허리와 등줄기가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뒹굴며 대편을 보기가 어려우며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손발이 차가우니, 족태양경(足太陽經)과 족소음경(足少陰經)에 침을 놓습니다. 위학(胃瘡)도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병들게 함에 자주 배고파하면서도 음식은 잘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고 나서는 옆구리가 벌어지는 듯하며 그득하고 배가 불룩해지니,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음경(足太陰經)의 橫脈에 침을 놓아 피를 뱉습니다. 학질이 발작하여 몸에 바야흐로 열이 나려고 할때는 부상(附上)의 동맥에 침을 놓아 그 혈자리를 열어 서 피를 내면 곧 몸이 서늘해지고, 학질 발작이 바야흐로 오한이 나려고 할때는 수양명경(手陽明經)과 수태음경(手太陰經)과 족양명경(足陽明經)과 족태음경(足太陰經)에 침을 놓습니다.”⁴²⁾

병명 학질에 속한 ‘五瘡’은 ‘간학(肝瘡), 심학(心瘡), 비학(脾瘡), 폐학(肺瘡), 신학(腎瘡)’을 말한다. 학질이라도 그 부위가 다르면 발생하는 寒氣와 熱氣의 경중이 다르다. 『說文解字』와 고문헌에서는 학(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다.

瘡, 『說文解字·疒部』: “熱寒休作病. 从疒从虐, 虐亦聲. 魚約切” 段注 “謂寒與熱一休一

『17452』편 탁본 郭沫若 『甲骨文合集』1977.12 p.2371.

42) “肺瘡者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 如有所見者, 刺手太陰陽明. 心瘡者 令人煩心甚, 欲得清水, 反寒多, 不甚熱, 刺手少陰. 肝瘡者, 令人色蒼蒼然, 太息, 其狀若死者, 刺足厥陰, 見血. 脾瘡者,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刺足太陰. 腎瘡者, 令人洒洒然, 腰脊痛, 宛轉, 大便難, 目眴眴然, 手足寒, 刺足太陽少陰. 胃瘡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 出血. 瘡發身方熱, 刺附上動脈, 開其空出其血, 立寒, 瘡方欲寒, 刺手陽明太陰, 足陽明太陰.”

作相代也. ……凡疾或寒 或熱耳. 而此疾先寒後熱. 兩疾似酷虐者.”⁴³⁾

「黃帝內經·素問·瘧論」: “瘧之始發也, 先起于毫毛, 伸欠乃作, 寒慄鼓頤, 腰脊俱痛, 寒去則內外皆熱, 頭痛如破, 渴欲冷飲.”⁴⁴⁾

「周禮·天官·疾醫」: “秋時有瘧寒疾.” 賈公彥疏「秋時陽氣漸消, 陰氣方盛, 惟火沴金, 兼寒兼熱, 故有瘧寒之疾.”⁴⁵⁾

「釋名·釋疾病」: “瘧、酷虐也.”⁴⁶⁾

「廣雅·釋詁」: “瘧, 惡也.”⁴⁷⁾

「說文解字·疒部」: “瘧, 殘也.”⁴⁸⁾

학(瘧)자에 대한 해석은 『說文解字』와 「黃帝內經·素問·瘧論」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 그 발병 증상이 ‘열기와 한기가 번갈아서 오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釋名·釋疾病」에서 ‘학질은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그 고통과 후유증이 아주 심하여 잔인한 병’으로 당시 많은 사람이 학질로 사망하였다.

③ 瘧

瘧, 「說文解字·疒部」瘧, 有熱瘧. 从疒占聲. 春秋傳曰, 齊侯疥, 遂瘧. 段注「春秋傳曰, 齊侯疥, 遂瘧. 左傳昭二十年文. 按梁元帝及袁狎, 顏之推欲改疥爲瘵. 所謂無事而自擾也. 陸氏德明既辨之矣.”⁴⁹⁾

「左傳·哀公二年」: “瘧作而伏.” 杜預注 “瘧, 瘧疾也.”⁵⁰⁾

43) 「說文解字·疒部」: “瘧은 열기와 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疒가 의미부이고, 瘧도 의미부인데, 학은 소리부도 겸한다.” 段注 “열기와 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병이란……무릇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는 증상이다. 이 학질은 먼저 오한이 오다가 후에 열이 나는 현상으로 두 현상의 질병이 몹시 잔학한 자와 같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4.

44) 「黃帝內經·素問·瘧論」: “학(瘧)이 처음 발생함이 먼저 호모(毫毛)에서 오싹오싹함이 일기 시작해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나서 이에 발작하니, 오한(惡寒)이 나서 몸이 떨리면서 아래 턱을 두드리며 허리뼈가 모두 아프고, 오한이 사라지면 안과 밖에서 모두 열이 나면서 두통이 머리가 깨지듯이 심하며 갈증이 나서 찬 음료를 마시고자 한다.”

45) 「周禮·天官·疾醫」: “가을에는 학질이 잘 생긴다.” 賈公彥疏 “가을에는 양기가 점차 소멸되고, 음기가 비로소 성해지는데, 불로 인해 금을 해치게 되어, 오한이 왔다가 다시 열이 나는 학질에 걸렸다.” 「周禮·天官·疾醫」, 『十三經注疏』3,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73.

46) 「釋名·釋疾病」: “瘧은 몹시 잔학하다.” 「釋名·釋疾病」, 『釋名疏證』, 臺北:廣文書局 1995.02, p.265.

47) 「廣雅·釋詁」: “瘧은 악하다.” 「廣雅·釋詁」, 『廣雅疏證』卷三下, 臺北:廣文書局 1990.01, p.93.

48) 「說文解字·疒部」: “瘧은 잔인하다.” 許慎, 『說文解字』卷五上, p.211.

49) 「說文解字·疒部」: “瘧, 열이 나는 학질을 말한다. 疒을 의미부로, 占은 소리부이다. 춘추전 왕, 제후가 몸에 걸렸다가 결국에는 학질을 앓았다” 단옥재 주: “춘추전왕, 제후가 몸에 걸렸다가 결국에는 학질을 앓았다. 「左傳·昭二十年」단옥재 안 “양원제 및 원압, 안지추가 오류가 났다고 인정되어 ‘瘵’자로 수정하기를 원했고, 이후 육덕명이 그 오류를 판별하였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4.

50) 「左傳·哀公二年」: “학질에 걸려 누워 있소.” 杜預 주: “瘧은 학질이다.” 「左傳·哀公二年」, 『十三

『集韻·去聲八』: “疔, 瘡病.”⁵¹⁾

疥, 『說文解字·疒部』: “疥, 搔也.” 段注 “搔瘍也.”⁵²⁾

점(疔)자는 ‘熱氣만 있는 학질’이다. 『集韻·去聲八』에서 점(疔)자와 해(瘡)자는 ‘학질’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옥재 주에서 인용한 春秋傳에서 점(疔)자를 개(疥)자로 풀이하였으나, 개(疥)자는 ‘종기를 긁는다’는 의미로 梁 元帝 및 袁狎, 顏之推가 오류가 났다고 인정되어 ‘해(瘡)’자로 수정하기를 원했고, 이후 陸德明이 그 오류를 판별하였다.

④ 瘡

瘡, 『說文解字·疒部』: “瘡, 二日一發瘡也, 从疒亥聲.” 段注 “今人謂, 間二日一發爲大瘡. 顏之推云, 兩日一發之瘡. 今北方猶呼瘡瘡.”⁵³⁾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 “逆之則傷心, 秋爲瘡瘡.”⁵⁴⁾

『玉篇·疒部』: “瘡, 瘡疾, 二日一發.”⁵⁵⁾

해(瘡)자는 ‘격일로 학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해학(瘡瘡)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학질의 일종으로 전염병이다.

5) 과로

① 瘧

瘧, 『說文解字·疒部』: “瘧, 罷病也. 从疒隆聲. 瘧, 籀文瘧省. 力中切.” 段注 “罷病也.

經注疏』6 臺北:藝文印書館印行, 1985.12, p.996.

51) 『集韻·去聲八』: “疔은 학질이다.” 『集韻·去聲八』五十六 『集韻』, 中華書局聚珍倣宋板印, 1912-1948, p.28.

52) 『說文解字·疒部』: “疥, 긁다.” 段注 “疥는, 종기를 긁는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3.

53) 『說文解字·疒部』: “瘡는 이틀마다 한 번씩 발작하는 학질을 말한다. 疒이 의미부이고, 亥은 소리부이다.” 단옥재 주: “오늘날 말하기를, 이틀마다 한 번씩 발작하는 대학질이다. 顏之推가 이르기를 이틀마다 한 번씩 발작하는 학질이다. 오늘날 북방에서는 해학(瘡瘡)이라고 부른다.” 許慎『說文解字』卷七下, p.354.

54)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 “이 양생법에 거역하게 되면,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심장을 상하게 된다. 비록 즉시 발병하지 않더라도 가을이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학질(瘡疾)이 된다.”

55) 『玉篇·疒部』: “瘡는 학질이다. 이틀마다 한 번씩 발작한다.” 『玉篇』卷十一, www.zhonghuadiancang.com/xueshuzaji/yupian/70516.html [2023.10.28.]

病當作癰。罷者，廢置之意。凡廢置不能事事曰罷癰。……師古注漢書，改罷病作疲。”⁵⁶⁾

『史記·白起王翦列傳』：“王翦謝曰，老臣罷病悖亂，唯大王更擇賢將。”張守節『史記正義』“罷，音皮。”⁵⁷⁾

『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論』二十三 “膀胱不利爲癰。”⁵⁸⁾

『黃帝內經·素問·五常正大論』：“其病癰閉，邪傷腎也。”王冰注“癰，小便不通。”⁵⁹⁾

『說文解字』서 용(癰)자는 ‘과병(罷病)’으로 풀이하였고, 단옥재 注에서 “罷者，廢置之意”라고 풀이하였다. 즉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黃帝內經』을 참고하면 ‘방광에 사기(邪氣)가 들어 신장이 상하여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신장정(腎臟靜)’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가 생기고 과로로 인해 ‘사기(邪氣)가 신장에 들어가 신장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로 배뇨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한다. 그 증상이 심하면 ‘용폐(癰閉)’⁶⁰⁾되어 불치의 병에 이르게 된다.『史記·白起王翦列傳』에서 ‘王翦이 노쇠하여 罷病에 걸려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였다. 즉 ‘기력이 노쇠하여 배뇨 작용이 잘되지 않음’을 뜻한다. 張守節이 과(罷)음을 피(皮)라고 하였고, 顏師古 주 漢書에서 ‘과병(罷病)’을 ‘피병(疲病)’으로 수정한 것은 당시 과(罷)자와 피(皮)자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癰)은 ‘피곤(疲困)’이 주원인으로 발병되는 병이기 때문이다.

② 疲/痠

56) 『說文解字·疒部』：“癰은 견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疒은 의미부이고, 隆은 소리부이다. 癰은 주 문체인데 癰자가 생략된 자형이다.”段注：“과병(罷病)이란. 병에 걸려 맥이 풀리고 고단하여 몹시 기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과(罷)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무릇 폐치(廢置)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폐용(罷癰)이라고 한다.……顏師古 주 漢書에서 과병(罷病)을 피병(疲病)으로 수정하였다.”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5.

57) 『史記·白起王翦列傳』：“王翦이 사죄하여 이르기를, 노신은 몸이 과병(罷病)이 들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생각건대 대왕께서는 다시 현명한 장수를 택하십시오.”張守節, 『史記正義』：“罷는 소리가 피(皮)이다.”『史記·白起王翦列傳』, 『新校本史記三家注并附編二種 三』, 臺北:鼎文書局 1997.10, p.2340.

58) 『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論』：“방광의 기능이 나빠지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용(癰)이라고 한다.”

59) 『黃帝內經·素問·五常正大論』：“그 병은 용폐(癰閉)라고 한다. 사기가 신장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王冰 주 “癰은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이다.”『黃帝內經·素問·五常正大論』第二十卷「素問·五常正大論」七十,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古文社, 1990.05 p.175.

60) 용폐(癰閉): 『東醫寶鑑』에 룡(癰)과 폐(閉)는 한 가지 병이지만 분별해서 보면 폐는 갑자기 생긴 병인데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룡은 만성병인데 소변을 시원하게 누지 못하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하루에 수십 번 이상 누는 것이라고 하였다. 룡과 폐는 다 같이 배뇨장애의 정도상 차이에 따라 나눈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합해서 용폐라고 한다. 『한의학대사전』,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01.06.15.

疲, 『說文解字·疒部』: “疲, 勞也. 从疒皮聲.” 段注 “傳多假罷爲之.”⁶¹⁾

「莊子·齊物論」: “茶然疲役而不知其所歸, 可不哀邪!” 陸德明 『經典釋文』引簡文注“疲, 病困之狀.”⁶²⁾

「史記·平原君列傳」: “臣不幸有疲癯之疾.”⁶³⁾

「管子·小匡」: “故使天下諸侯以疲馬犬羊爲幣.” 注 “疲爲瘦也.”⁶⁴⁾

瘦, 『說文解字·疒部』: “瘦, 羸也. 从疒叟聲. 所又切” 段注 “肉部曰, 羸、少肉也, 今字作瘦.”⁶⁵⁾

피(疲)자는 『說文』에서 ‘과로’로 풀이하였다. 「莊子·齊物論」에서는 피(疲)자는 ‘과로하여 병이 난 상태’라고 하였다. 「史記·平原君列傳」에서는 ‘피육(疲癯)’이라고 하여 과로로 인해 배뇨가 원활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하였다. 「管子·小匡」에서는 피(疲)자의 뜻을 수(瘦)라고 풀이하여 ‘몸의 살이 빠져 여윈 상태’라고 하였다. 수(瘦)자는 『說文解字』에서 ‘살이 적은 것을 말하고, 오늘날 수(瘦)라는 자형으로 통용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피(疲)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피곤이 원인이 되어 ‘피육(疲癯)’이 발생하였고, 또 다른 의미는 피곤으로 인해 ‘몸이 마르는 병’이 생긴 것을 말한다. 즉 피(疲)와 수(瘦)는 그 병의 원인이 모두 ‘과로’로 인한 것이다.

③ 瘵

瘵, 『說文解字·疒部』: “瘵, 勞病也. 从疒單聲.” 段注 “大雅, 下民卒瘵. 釋詁, 毛傳皆云, 瘵, 病也. 小雅, 哀我瘵人. 釋詁, 毛傳曰, 瘵, 勞也. 許合云, 勞病者, 如嘔訓喘息兒, 瘵車敝兒皆單聲字也. 瘵與疸音同而義別, 如郭注山海經, 師古注漢書皆云, 瘵, 黃病. 王水注素問, 黃疸云, 疸, 勞也. 二字互相假而淆惑矣. 瘵或假憊, 或作瘵.”⁶⁶⁾

61) 「說文解字·疒部」: “疲는 피로하다 라는 말이다. 疒은 의미부이고, 皮는 소리부이다.” 段注 “경전에서 다수가 ‘罷’로 가차하였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5.

62) 「莊子·齊物論」: “고달프게 수고하여 애쓰지만 그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여, 애처롭지 아니한가!” 陸德明, 『經典釋文』簡文 주 인용 “疲는 병들어 곤궁한 상태.” 「莊子·齊物論」, 郭慶藩, 『莊子集解』, 華正書局 1989.08, p.56, p.60.

63) 「史記·平原君列傳」: “신이 불행하게도 피육(疲癯)의 병에 걸렸습니다.” 「史記·平原君列傳」, 『新校本史記三家注并附編二種 三』, 臺北: 鼎文書局 1997.10, p.2365.

64) 「管子·小匡」: “그러므로 천하의 제후들은 여윈 말과 개와 양으로 예물을 하였으나.” 注 “疲는 ‘여위다’ 라는 뜻이다.” 李勉註譯, 『管子今注今譯』上冊,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90.09, p.393.

65) 「說文解字·疒部」: “瘦(瘦)는 ‘여위다’ 라는 뜻이다. 疒는 의미부이고, 叟는 소리부이다.” 段注 “육부왈(肉部曰), 구(羸)는 살이 적은 것을 말한다. 오늘날 수(瘦)자이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5.

66) 「說文解字·疒部」: “瘵는 ‘과로하여 생긴 병’을 말한다. 疒은 의미부이고, 單은 소리부이다.” 段注: “『詩經·大雅·板』에서 그 아래 백성은 끝내 병이 났다. 석고(釋詁), 모전(毛傳) 모두 이르기를, 瘵는, ‘병이 났다’라고 풀이했다. 『詩經·小雅·大東』에서는, 내 몸이 몹시 피로하니 애처롭구나. 석

단(瘡)자는 『說文解字』에서 ‘과로하여 생긴 병’이라고 했다. 단옥재 주에서 『詩經·大雅·板』에서는 ‘병이 나다.’라고 풀이하였고, 『詩經·小雅·大東』에서는 ‘과로하다’라고 풀이했다. 그래서 허신은 합쳐서 ‘과로하여 생긴 병’으로 풀이하였다. 단옥재 주에서 인용한 郭璞 주 『山海經』, 顏師古 주 『漢書』에서 모두 ‘단(瘡)은 황병(黃病)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단(瘡)자는 ‘황달’을 의미하고 그 원인은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6) 선천적인 장애

① 癡/胥/癡/氣

癡, 『說文解字·疒部』: “癡, 不慧也, 从疒疑聲.” 段注 “癡者, 遲鈍之意, 故與慧正相反. 此非疾病也. 而亦疾病之類也.”⁶⁷⁾

『方言』卷十 “癡, 駘也.”⁶⁸⁾

胥, 『說文解字·肉部』: “胥, 駘也.”⁶⁹⁾

『方言疏證』引 『廣雅』 “駘, 癡也.”⁷⁰⁾

『廣韻』 “胥, 癡兒.”⁷¹⁾

癡, 『說文解字·心部』: “癡, 駘也. 从心从疑, 疑亦聲.” 段注 “則方言曰癡, 駘也. 癡駘即方言之癡駘.”⁷²⁾

氣, 『說文解字·心部』: “氣, 癡兒.”⁷³⁾

고(釋詁), 모전(毛傳)알, 瘡자는 ‘과로하여 생긴 병이다’라고 풀이하였다. 허신은 위의 문헌에서 뜻을 합하여 ‘과로하여 생긴 병’이라고 풀이하였는데, 瘡자는 ‘숨이 찬 모습’으로 풀이하였고, 瘡은 ‘수레의 행렬이 멈춘 모양’이라고 풀이하였다. 모두 ‘單은 소리부’ 글자이다. 瘡자와 瘡자의 소리는 같으나 뜻은 다르다. 예로 郭璞 주 『山海經』, 안사고 주 『漢書』에서 모두 이르기를 瘡은 ‘황병(黃病)’이라고 말한다. 王水 주 素問에서 황달(黃疸)에서 瘡은, ‘피로하다’의 뜻이다. 두 글자는 서로 가차하여 혼용하고 있다. 瘡은 혹은 瘡자로, 혹은 瘡자로 가차하고 있다.” 許慎, 『說文解字』卷七下, p.355.

67) 『說文解字·疒部』: “癡자는 ‘우둔함’을 말한다. 疒은 의미부이고, 疑는 소리부이다.” 段注: “癡는, ‘느리고 둔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慧(慧)자와는 상반된 뜻이다. 이것은 질병은 아니나 질병류에 해당된다.” 許慎, 『說文解字』卷七編下, p.356.

68) 『方言』: “癡(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戴震, 『方言疏證』卷十,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7.

69) 『說文解字·肉部』: “胥(승)은 ‘어리석음’을 뜻한다.” 許慎, 『說文解字』卷四編下, p.173.

70) 『方言疏證』引 『廣雅』: “駘(애)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戴震, 『方言疏證』卷十,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p.8.

71) “胥(승)은 ‘어리석은 모양’을 말한다.” 沈兼士, 『廣韻聲系』, 大化書局, 1984.10, p.812.

72) 『說文解字·心部』: “癡(애), 어리석음 뜻한다. 心과 疑는 의미부이고, 疑는 소리도 겸한다.” 段注: “즉 『方言』알 癡(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애애(癡駘)는 즉 『方言』의 치애(癡駘)이다.” 許慎, 『說文解字』卷十編下, p.514.

73) 『說文解字·心部』: “氣(회)는 ‘바보스러운 모습’을 말한다.” 許慎, 『說文解字』卷十編下, p.515.

癡/瘖/癡/瘖 이 글자 중 瘖/癡/瘖 세 글자는 『說文解字』疒부의 글자는 아니지만 치(癡)자로 풀이한 글자를 모아 뜻을 서로 호훈(互訓)하는 상황을 고찰해 보았다.

치(癡)자는 『說文解字』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단옥재 주에서 “치(癡)자는 우둔하다는 의미로 ‘혜(慧)’자의 의미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류에 속한다’라고 했다. 즉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질(疾)자는 갑골문에서 ‘화살이 옆 가슴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을 뜻한다. 74) 즉 질병은 ‘외상’이나 혹은 ‘병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치(癡)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태어나고 보니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류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치(癡), 승(瘖), 애(駭), 애(癡), 회(氣)이 글자들은 서로 互訓 하며, 모두 ‘멍청하다, 우둔하다, 바보 같은 모습’ 등의 뜻을 나타낸다.

3. 나오며

『說文解字』疒부에 수록된 103개 글자 중 질병의 원인과 관련 있는 18개의 글자와 질병류에 속하는 4개의 글자를 통해 ‘고대 중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을 6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첫째, 氣의 과다로 인한 질병은 疰, 癰, 瘰 등의 3글자를 통해 六氣가 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이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병으로 風의 과다, ‘寒濕의 과다, 寒氣의 과다, 즉 風, 寒, 濕 三氣의 과다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다. 이중 허신은 비(脾)병의 발병 원인이 ‘습기’에만 국한되어 글자를 풀이하였으나, 단옥재는 중의학 전문 서적인『黃帝內經·素問』을 인용하여 風, 寒, 濕 三氣가 서로 섞여 체내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칠 때 발병하는 마비 증상을 ‘痺’로 해석하여 허신의 해석을 보충하였다.

둘째, 외상으로 인한 질병은 瘡, 瘡, 癰, 瘰 등의 글자로 외상의 기록을 탐색하였다. 瘡, 瘡, 癰, 瘰자는 큰 의미로 ‘구타로 인한 상처’이나 ‘瘡’는 단지 붓고 멍이 든 것을 의미하고, 瘡, 癰, 瘰 글자들은 ‘멍이 든 것뿐만 아니라 피가 흐르고, 껍질이 벗겨져 흉터가 난 것’을 의미한다.

74)李孝政『甲骨文字集釋』,第七“象矢著人肱下,會意,謂其來之疾也,與訓病之疾本非一字,惟矢中人即有創病之義” 𠄎(一期 後下 35.2), 𠄎(一期 乙383), 𠄎(三期 粹1568) p.2525-2526.

셋째, 약물 오용으로 인한 질병으로 癩, 癩자를 통해 ‘약물을 오용하여 생긴 독으로 인해 매우 아픈 상황’을 말한다. 그 의미는 같으나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다.

넷째, 역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그 예로 疫/癘, 瘧, 疰, 瘵 등의 글자로 疫/癘자는 온백성이 역병에 걸린 ‘전염병’을 말하고, 瘧, 疰, 瘵는 ‘학질’을 말하는데, 그 병의 정도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다.

다섯째,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예를 들면, 癰, 疲/瘵, 瘵 등의 글자를 고석한 결과, ‘瘵’자는 ‘과로로 인해 邪氣가 신장에 들어가 신장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 배뇨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疲’자는 ‘피곤이 원인이 되어 피륙(疲瘵)이 발생할 때’를 말하고, ‘疲’와 ‘瘵’는 같은 의미로 쓰인 예는 ‘疲가 과로로 인해 살이 마를 때’는 ‘瘵’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瘵자는 ‘과로로 인한 황달’을 의미한다.

여섯째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질병으로 癡/瘖/駢/癡/瘖자들은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로 태어난 병’을 말한다. 그러나 그 발병의 원인은 『說文解字』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참고문헌】

<단행본>

許 慎, 『說文解字』, 書銘出版社, 1994.

顧野王, 『玉篇』, 卷二十五, 四庫全書本.

戴 震, 『方言疏證』,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

俞佳迪, 『集韻』,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

徐 鍇, 『說文解字繫傳』, 『說文解字通釋』, 臺聯國風出版社印行, 1968.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藝文印書館印行, 1975.

苑 嘯, 『後漢書』, 洪氏出版社印行, 1978.

郭 璞, 『山海經校注』, 洪氏出版社印行, 1981.

孔安國傳, 孔穎達正義, 『尚書正義』,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印行, 1985.

鄭 元注, 賈公彥疏, 『周禮正義』,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印行, 1985.

杜 預注, 孔穎達正義,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印行, 1985.

郭慶藩, 『莊子集解』, 華正書局, 1989.

李 勉註譯, 『管子今注今譯』, 上冊,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90.

楊家駱主編, 『漢書』, 『新校本漢書并附編二種』, 鼎文文書局印行, 1995.

李孝定主編, 『甲骨文字集釋』, 第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2,

- 沈兼士, 『廣韻聲系』, 大化書局, 1984.
- 高 明, 『高明小學論叢』, 黎明文化事業公司, 1988.
-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古文社, 1990.
- 高 明·葛英會, 『古陶文字徵』, 中華書局, 1991.
-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3.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第三, 1996.
- 高 亨·董治安, 『古字通假會典』, 齊魯書社出版發行, 1997.
- 楊家駱主編, 『史記』, 『新校本史記三家注并附編二種 三』, 鼎文書局, 1997.
-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中華書局, 1998.
- 張光裕, 『郭店楚簡研究』, 第一卷, 文字編, 藝文印書館印行, 1999.
- 張守中, 『郭店楚簡文字編』, 文物出版社, 2000.
-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저, 김동일 외 편저, 『한의학대사전』, 여강출판사, 2001.
- 許敬生, 「簡論『說文解字』在中醫研究的價值」, 『許慎文化網』, 2006.
-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9.
- 孫 剛, 『齊文字編』, 福建人民出版社, 2010.
- 桂 馥, 『說文解字議證』, 上海古籍出版社, 2021.

<논문>

- 孙诗懿, 「『說文解字』疒部字研究」, 遼寧師範大學碩士論文, 2013.
- 唐 飛, 「說文解字“疒”部研究」, 『青年與社會』, 2013.
- 김영현, 「中國古代疾病관련 甲骨卜辭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 홍연옥, 「문자로 본 중국인의 질병관 - 『說文解字』‘疒’부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雜誌』, 第58輯, 2017.
- 黃正純, 「從『說文解字』探索中國古代人體及疾病的認知」, 國立中央大學 碩士論文, 2018.
- 曾思珊, 「從疒部內容看古代醫療文化——以『說文解字』、『玉篇』、『正字通』、『康熙字典』」, 臺北市立大學碩士論文, 2019.

<기타자료>

- “諸病源候論”, https://www.zysj.com.cn/lilunshuji/zhubingyuanhoulun/623-14-1_group.html [2023.10.2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說文解字, 疒部, 古代中國人的疾病, 文字中包含古代文化, 語源學				
	영문	『ShuoWenJieZi』, 「疒」 radical, Causes of ancient Chinese diseases, Chinese Culture in character, Etymology				
<div>From 『Shuo Wen Jie Zi』 「疒」 Radical to Explore the Causes of Ancient Chinese Diseases</div> <div>Seoh Jae-sun</div> <p>『ShuoWenJieZi』 is a dictionary of characters from the Eastern Han Dynasty and before, with a wide range of characters collected. In 高明’s 「New Evaluation of ShuoWenJieZi」, he appraised 『ShuoWenJieZi』 as fourteen. Among them, the 10th value is “The history of ancestors collected by 『ShuoWenJieZi』” and the 12th value is “『ShuoWenJieZi』 provides a variety of materials”. That is, 『ShuoWenJieZi』 not only contains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ds, but also contains the idea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t that tim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finds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words about diseases in 『ShuoWenJieZi』 written by 许慎 in the Eastern Han Dynasty. According to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expert, 許敬生 counted about 400 words related to pathology in 『ShuoWenJieZi』 and 103 words related to disease appeared in the Volume7, Part2 「疒」 radical of 『ShuoWenJieZi』.</p> <p>After analyzing them, he concluded that there are eight causes of diseases in ancient China. For example, first, too much gas, second, injury, third, misuse of drugs, fourth, disease caused by poor food consumption fifth, plague, sixth, exhausted, seventh, diseases of the birth.</p> <p>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se characters, after comparing with the excavated text before the publication of 『ShuoWenJieZi』, and then, using the Chinese ancient calligraphy and medical literature as circumvention evidence, finally explore the “causes of the occurrence of diseases in ancient China”. However, did not appear in the 『ShuoWenJieZi』 「疒」 radical, the other words that mention disease in the radical are also reviewed, so as to supplement the reasons for the diseases in ancient China.</p>						
저 자	서재선 / 徐再仙 / Seoh Jae-su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4.02.10.	심 사 일	2024.03.04.	게재확정일	2024.03.18.